



My name is Sister Lorilee Ufolla. I'm from Pittsburgh, Pennsylvania. I had loving parents-Fred and Colette. Our family was complete with my two sisters - Maureen and Pat and one brother - Fred. We grew up in a loving home with much fun. Our Catholic faith was an important part of our family life. I lived in Brookline and attended Resurrection Grade School and Elizabeth Seton High School. In both of these schools I was influenced by the Sisters of Charity who

taught me. They were educators who were interested in each student. They encouraged us to learn and to reach out to others.



I entered the Sisters of Charity on September 8, 1957 after attending a retreat at Seton Hill University. The retreat priest encouraged me to follow my heart and listen to the call from the Lord.



I was educated at Seton Hill University, Villanova University, Duquesne University and Saint Mary of the Woods.

In the early years as a teacher I taught in Greensburg, Pittsburgh, Washington, D.C. and Phoenix. I was principal in the Altoona, Pittsburgh, Greensburg, and Phoenix Dioceses. In the later years I became Site manager to Seniors in the Bloomfield and Lawrenceville Area. As the children and teachers under my care were special to me so were the seniors. I



especially enjoyed planning the yearly casino trip, calling bingo, planning monthly parties and welcoming speakers on various topics, including computers.



I love traveling and had an opportunity to visit Mexico City and the shrine of Our Lady of Guadalupe. In 2016 I went to our mission in Ecuador with IECM and taught art to students with auditory and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2017 I toured Israel and the Holy Land sites. Each trip was an experience I treasured.

I am now retired at Caritas Christi. I like being with the sisters. My days are full with visiting the sisters, exercising each day, and volunteering when I can. As I think back on my life I am grateful to the Lord for each opportunity to share myself with others and to gain insight from all. I try to reach out each day to all I meet and share life.



로렐리 유폴라 Lorilee Ufolla 수녀입니다. 저는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사랑하는 부모님 프레드Fred와 콜레트Colette, 저와 세 남매 모린Maureen, 팻Pat, 프레드Fred입니다. 우리 네 남매는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즐겁게 자랐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가톨릭 신앙은 중요한 부분이었지요. 브루클라인Brookline에 살았던 저는 부활초등학교Resurrection Grade School와 엘리사벳 씨튼 고등학교Elizabeth Seton High School에 다녔습니다. 두 학교에서 사랑의 씨튼 수녀님들에게 배우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수녀님들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교육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배우고 관심을 갖고 다가가라고 하셨지요.



씨튼힐 대학교에서 열린 피정에 참석하고 나서 1957년 9월 8일 수녀회에 입회했습니다. 그때 피정을 지도하신 신부님께서 저에게 제 마음을 따르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씨튼힐 대학교Seton Hill University, 빌라노바 대학교Villanova University, 듀케인 대학교Duquesne University, 세인트 메리 오브 더 우즈 대학Saint Mary of the Woods College에서 공부했습니다.

초기에는 교사로서 그린스버그, 피츠버그, 워싱턴 D.C., 피닉스에서 가르쳤고, 알투나, 피츠버그, 그린스버그, 피닉스교구에서 교장직을 맡아 일했습니다. 나중에는 블룸필드Bloomfield와 로렌스빌Lawrenceville 지역에서 노인 센터 관리자로 일했습니다. 교육 사도직을 하며 함께 일한 교사들과 어린이들이 저에게 특별했듯이 어르신들



역시 저에게 특별했습니다. 특히 연례행사인 카지노 여행을 계획하고, 빙고 게임을 하고, 매월 파티 계획과 컴퓨터 등 여러 주제에 관한 강의를 하는 강사를 맞이하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저는 또 여행을 좋아합니다. 멕시코 시티와 과달루페 성모님 성지를 방문했고, 2016년에는 은사체험으로 에콰도르에 있는 우리 선교지에 가서 청각 장애와 지적 장애가 있는 학생들과 함께 미술 수업 활동도 했습니다. 2017년에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지도 다녀왔습니다. 모든 여행이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체험이었지요.



지금은 은퇴하여 카리타스 크리스티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수녀님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참 좋습니다. 수녀님들을 만나고, 매일 운동하고, 시간이 날 때 봉사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제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고, 모든 이들을 통해 통찰을 얻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매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다가가 삶을 나누려고 합니다.

